

문화재 보수이론 (文化財 補修理論)

金 奉 建

(문화재연구소

건축기좌)

目 次

- | | |
|-----------------|--------------|
| 1. 머리말 | 4. 浪漫主義 補修理論 |
| 2. 建築文化財 補修의 歷史 | 5. 現代補修理論 |
| 3. 樣式主義 補修理論 | 6. 結 論 |

1. 머리말

문화재(文化財)는 영어로 Cultural properties 혹은 Cultural assests로 불리운다. 이 말은 문화적 가치가 있는 재산 즉 문화유산(文化遺産)을 의미한다. 문화유산에 속하는 구체적 범위는 나라마다 여건에 따라 차이가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문화재보호법(文化財保護法)에 의하면 문화재는 유형문화재(有形文化財)는 물론 무형(無形)의 문화유산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폭넓은 문화재개념은 소프트웨어의 뒷받침이 없는 하드웨어는 가정하기 힘들므로 당연한 것으로 생각된다. 유형문화재는 국보, 보물, 중요민속자료, 사적 및 명승, 천연기념물이 포함되어 있다. 본 논고에서는 논의의 대상을 유형문화재(有形文化財)중에서 명승, 천연기념물을 제외한 나머지 건축물(建築物)로 국한하고자 한다.

건축문화재는 역사적(歷史的), 미적(美的), 건축적(建築的), 과학적(科學的), 사회적(社會的) 가치 등을 복합적으로 지니고 있는 대상(對象)으로서 보존의 필요성이 공적으로 인정되어 있는 존재이다. 그러나 이들은 이미 오랜 세월을 거쳐 노후가 진행된 존재이며 앞으로도 계속 쇠락할 것이다. 재료의 노후 외에도 현재 급속도로 악화되는 환경오염, 무관심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한 건축문화재의 쇠락가능성은 과거 어느 때에 비하여 매우 높은 실정이다. 한번 손상된 후에는 원래의 상태로 되돌릴 수 없는 건축문화재의 특성은 원형을 보존해야할 필요성을 더욱 증대시켜 준다. 현대는 첨단과학기술, 정보산업 등에 의해 주도되는 '후기산업사회(post industrial society)'이나 그럴수록 문화의

뿌리에 대한 현대인의 감성은 건축문화재보존을 갈구하고 있다 하겠다.

보존(conservation)은 그 의미가 매우 포괄적인 개념으로 건축물에 대한 개입(intervention)의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¹⁾

- (1) 환경조절에 의한 간접보존(prevention of deterioration)
- (2) 동결적 보존 (preservation)
- (3) 조직강화(consolidation)
- (4) 보수(restoration)
- (5) 개조(rehabilitation)
- (6) 복제(reproduction)
- (7) 이전(reconstruction)

본고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개념은 보수로 “최초 건축시의 개념을 염두에 두고 건조물을 원상태로 되살리는 작업”²⁾을 의미한다. 보수는 받침재, 충전재 등을 사용하여 건조물의 물리적 상태를 강화하거나, 통상적인 수리(repair) 등을 포함함은 물론 없어진 부재의 대체(replacement), 세척(cleaning), 새로운 부재의 첨가(addition) 등을 수반한다. 그러나 적절한 개조(alteration)를 거쳐 건축물을 원래의 용도와 다른 용도로 전용(예를 들면 중세의 수도원을 학교로 사용)하는 행위는 보수의 범위를 벗어난다. 한편 보수와 수리는 일반적으로 많이 혼동해서 사용하고 있으나, 엄밀하게 구분하면 수리는 건축물의 형태변화를 수반하지 않으나 보수는 부재의 첨가, 제거 등을 포함하므로 형태의 변화를 수반하는 점에서 약간의 차이가 난다.

건축문화재를 구성하고 있는 부재는 재료의 내구년한이 경과하면 필연적으로 퇴락하게 되어 있다. 손상된 건축문화재의 원형회복 및 수명연장을 위해서는 손상 정도에 따라 적절한 보수를 해야 한다. 보수를 어떻게 하는가는 건축물의 보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이다. 본 논고에서는 건축물보수에 관한 오랜 경험을 가진 유럽에서 전개·발전되어온 보수이론(補修理論)의 발달과정과 장, 단점 등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우리 실정에 맞는 보수이론을 정립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2. 건축문화재(建築文化財) 보수(補修)의 역사(歷史)

선조들이 남긴 건축유산에 대한 보수는 인류의 역사를 통하여 시대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끝없이 전개되어 왔는데, 그 기원은 그리스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된다. 그리스인들은 모든 예술은 모방(all arts is imitation)이라고 주창하는 등 선조들이 남긴 문화유산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건축유산에 대한 애정과 관심은 자연스럽게 건축문화재의 보존으로 연결되었다. 올림피아에 있는 헤라신전의 목재(木材)기둥이 부식되었을 때 그리스인들은 기존의 목재기둥 대신에 대리석기둥으로 교체하여 보수하였다.³⁾ 헤라신전 부근의 고고학적 발굴에 의하면 당시에는 대리석기둥이 유행하던 양식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헤라신전의 보수사례를 통해서 그리스인들의 건축유산(建築遺産)

1) Feiden, B.M., Conservation of Historic Buildings, pp.8~12. London, Butterworth Scientific, 1982.

2) Feilden, B.M. op.cit, p.9

3) Pausanias, Description of Greece(trans by J.B. Frazer. London, Macmillan, 1898) Book x,v.9~13

에 대한 보수방법론(補修方法論)의 일단을 엿볼 수 있다. 즉 보수공사시에 건축문화재가 지닌 원래의 양식(style)을 고수하기보다는 보수 당시에 유행하는 새로운 양식으로 대체 하던 경향을 알 수 있다.

그리스를 이은 로마제국에서는 건축유산의 보수시에 통상적으로 기존의 건축물로 부터 떼어낸 벽돌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Theodoric은 그때까지의 방법을 지향하고 기존 건물에서 추출한 벽돌 대신에 새로이 제작한 벽돌을 사용하고 벽돌에는 별도의 부호를 새겨 기존의 벽돌과 구분이 되도록 하였다.⁴⁾ 즉 보수공사를 핑계로 기존 건축유구가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고 신·구재료를 구분함으로써 건축문화재의 원형을 보다 정확히 후손들에게 인식시키고자 하는 방법(方法)을 채택한 것이다. 이러한 발상은 후에 낭만주의 보수이론(補修理論)의 근간을 이루게 된다.

중세에는 그리스, 로마문화(文化)에 대신하여 기독교문화(文化)가 등장하면서, 이에 따른 사회적 변화로 많은 건축유산들이 새로운 기능에 맞도록 교회(Church)등으로 개조되거나, 다른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 해체되어 대리석 상인들에게 팔려지는 등의 수난을 당하기도 하였다. 그 예로 콜롯세움은 13세기에 공적인 대리석 밀 생석회 채취 장소로 지정되어 과거의 건축유산에 대한 손상이 가속화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건축문화재에 대한 훼손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과거 유산인 건축문화재(建築文化財)를 보호하고 지키자는 노력이 끊임없이 계속되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건축문화재(建築文化財)에 대한 조직적 조사를 통하여 판테온, 바티칸의 오벨리스크, 성피터와 성포울사원의 바실리카등을 실측하고 도면을 제작하는 작업(作業)을 처음으로 실시하였다. 실측 작업 등을 통한 과거유산에 새로운 인식은 16세기의 새로운 건축사조인 ‘르네상스’를 태동케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하였다. 16세기 로마시의회는 홍수기간 중에 손상된 다리를 보수(補修)하는데 있어, 콜롯세움 주위에 널려 있는 돌을 상용하되 콜롯세움의 건축부재로 쓰여지고 있는 어떠한 부재(部材)도 건드려서는 안된다는 조건을 제시하였다. 17세기에 들어서는 로마시대의 건축유산을 보수하는데 있어 주변 환경과의 조화(調和)를 고려하는 개념을 처음으로 도입하고 있다. 예를 들면 Borini는 Navona광장을 보수할 때, 광장에 연해있는 Sant Agnese의 전면을 뒤로 몰림으로써 Bernini가 광장에 건립한 obelisk를 살리는 수법을 채택하였다.⁵⁾ 이러한 예는 해당 건축물의 보수에만 관심을 국한시키지 않고 주위 환경과의 조화를 염두에 두었다는 점에서 새로운 보수이론(補修理論)의 정립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세까지의 건축유산에 대한 보수는 시대와 지역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보여 주면서 발전, 변화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때까지의 보수(補修)는 일정한 이론적 근거에 의해 행하여 졌기보다는 그때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보수작업에 관여한 사람들의 생각에 따라 변화하였다. 건축유산은 오랜 기간을 거쳐 노후가 누적되었고 계속 노후가 진행될 운명이므로, 이에 대한 보수는 필연적으로 부딪치게 되는 문제이다. 자연적 요인에 의한 건축물의 노후 외에도 사회적 변동으로 건축유산에 가해지는 압력은 또 다른 형태로 보수의 필요성을 낳게 된다. 중세를 지나 근대로 들어서게 되면서 유럽사회가 겪은 정치적 변혁은 지금 까지 건축문화재에 적용되던 보수방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면서 새로운 방법론을 탄생하기에 이르렀다. 즉 그때까지 무분

4) Cevat Erder, Our architectural heritage;from consciousness to conservation, unesco, pp.56~59, museums and monuments xx.1986.

5) R. Wittkower, Art and Architecture in Italy 1600~1750, Baltimore,Md., Penguin Books.

별하고 이론적 논거가 부족하였던 방법론(方法論)을 지양하고 나름대로의 논리에 입각한 소위 현대적인 보수이론(補修理論)을 태동케 하였다.

3. 양식주의 보수이론(樣式主義 補修理論)

근대에 들어서면서 프랑스를 중심(中心)으로 한 유럽전역에서는 중세 혹은 그 이전의 건축유산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관심은 순수한 건축적 요구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주로 정치적, 종교적인 필요성에 의해 주도되었다. 예를 들면 루이 16세는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프랑스를 앞세우며 개인의 권위를 높이기 위하여 대규모의 건축물, 화려한 장식 등을 선호하였다. 절대군주의 개인적 취향은 그때까지 프랑스에 남아있던 많은 Gothic style의 건축물을 화려한 장식을 갖춘 형태의 건물로 개조·변형케 하거나, 퇴락한 중세건축물을 헐고 그 자리에 대규모의 건축물을 신축토록 하는 동기를 제공하였다. 군주 개인의 열망에 의한 건축유산의 인위적 변형은 그 뒤에도 계속되었다. 프랑스혁명(1789년)후의 공화정시대에는 왕궁, 성, 교회건물 등이 혁명정신에 위배된다는 명목 하에 파괴되었다. 나폴레옹 역시 기념비적인 (monumental)건축물을 추구하는 개인적 열망 하에 많은 보수 및 대규모 건축물을 신축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시대 상황하에 건축유산에 행해진 보수작업들은 그대까지 전해 내려온 건축유산을 원래의 모습과는 다른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변형케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은 당시의 미숙한 기술수준에 의해 더욱 증폭되었다.

Cathedral of Saint Denis의 보수과정은 이 시대의 미약한 기술수준으로 인한 건축유산보수의 문제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Saint Denis에서는 성당건물의 기초와 지붕을 보수하면서 기둥을 일부 깎아내고 새로운 기초를 삽입하였는데, 그 결과는 오히려 건물의 구조(structure)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보수 결과 아치에 균열이 발생하였으나 이에 대한 조치는 균열부위를 충전하는 것으로 끝났다. 그후 1837년에는 건물의 북쪽탑의 첨탑이 번개에 의해 손상을 입었는데 보수공사시에 원래의 첨탑과 다른 새로운 형태의 첨탑으로 대처하였다. 새첨탑의 과중한 무게는 마침내 북쪽탑 전체의 안전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케되었고 그 결과는 새로운 첨탑뿐만이 아니라 북쪽탑 전체를 철거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⁶⁾

정치적 의도 혹은 기술부족에 의한 보수공사(補修工事)의 시행 결과 수많은 부작용을 낳게 되었고 이러한 행위는 전문가 혹은 일반대중으로부터 심각한 우려의 소리를 낳게 되었다. 프랑스의 건축가 Viollet-le-duc(1814~1879)은 잘못된 보수에 의해 건축문화재가 입는 피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양식주의이론에 입각 “양식의 통일”(unity of style)에 의한 보수를 할 것을 주장하였다.

“보수는 건축물을 보전(preserve)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짓는 것(rebuild)이다. 보수는 건축물을 과거 어느 시대에도 존재치 않았던 완벽한 상태로 재구성(reinstatate)하는 것이다.”⁷⁾

6) L.Reau, Histoire du vandalisme, les monuments detruits de l'art fransais, pp.99~103. Paris Libraire Hachette, 1952.

7) Eugene Emmanuel Viollet-le-duc, Dictionnaire raisonne de l'architecture francaise du XIe and XVIe siecle, Paris, A Norel & Cie, 1868~74 : trans by charles Wethered, London, Sampson Low & Searle, 1875

그의 주장에 의하면 보수는 건축유산의 단순한 동결적 보존을 넘어선 보다 적극적인 개념으로 건축가의 창조력에 의해 건축유산을 보다 완벽한 상태로 만드는 것이었다. Viollet-le-Duc은 보수이론의 근거로 ‘양식의 통일’을 내세웠다. 즉 모든 건물과 건물부재들이 하나의 우세한 양식(predominant style)에 의해 보수되어야 하며, 이러한 원칙은 건물의 외관 뿐만이 아니라 구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았다.

역사적건축물(歷史的建築物)에서 우세한 양식을 찾아내는 방법으로는 철저한 증거(evidence)에 입각할 것을 주장하였다. 증거에 입각한 보수는 르네상스이후 프랑스 건축계의 주된 사조인 합리주의적 접근 태도(rational approach)에서 영향을 받은 것을 알 수 있다. 역사적 건축물에서 우세한 양식을 추출하기 위해 Viollet-le-Duc은 문헌, 드로잉, 건축물에 남아있는 흔적 등을 철저히 조사하였다. 건축물에 남아 있던 흔적을 조사하기 위해서 그는 Cuvier의 해석방법을 적용하였다. 즉 객관적 안목과 의식적 노력을 가지고 부분보다는 전체에 초점을 두어 관찰함으로써 전체의 우세한 양식을 추출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관찰과 해당 건축물에 관한 자료분석을 통하여 얻어진 지식은 동시대의 다른 건축물로부터 얻은 지식의 뒷받침을 받아 건축물의 우세한 양식을 최종 판단을 하는데 사용하였다. 실제로 그는 프랑스의 수많은 중세건축유산(中世建築遺産)에 대한 답사와 연구를 통하여 풍부한 지식을 축적하였다. 여기서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보수설계 및 공사의 detail한 부분에까지 적용코자 노력하였다.

Church of Vezealy(사진1) 보수공사(補修工事)에 있어서 Viollet-le-Duc은 건물에 혼재되어 있던 고딕양식의 부재를 없애고 로마네스크 양식의 부재(部材)를 보존하였으며 퇴락하여 없어진 부재는 로마네스크양식으로 대체하였다. 그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건물 주 출입구의 아치에 강한 인상을 주기 위하여 페인트칠을 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

노트르담 사원의 보수공사에서는 건물에 남아 있던 13세기의 창문을 그가 디자인한 12세기의 창문으로 교체하였으며 Classic시대의 부재와 17~18세기의 회화, 벽걸이 등을 제거하고 중앙 transpet에 새로운 부재(部材)를 첨가하였다. 그러나 전면출입구의 디자인을 바꾸고자 하는 그의 의도는 성직자들의 반대에 의해 실현되지 못하였다.

Viollet-le-Duc은 이전까지 특별한 이론적 근거없이 무분별하게 보수를 행함으로써 건축물을 손상시키는 행위에 반대하면서 양식주의이론을 주창하였던 바 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에서 건축유산의 보수(補修)에 일대 전환점을 가져다주었다.

- (1) 보수기준의 제시 : 양식의 통일
- (2) 증거에 입각한 과학성의 추구
- (3) 건축물분석에 있어서의 해석적 방법적용
- (4) 보수에 있어서 합리적 태도표명
- (5) 과거의 건축유산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의 중요성을 일깨움

그가 제시한 양식주의적 보수이론은 전 유럽에 빠른 속도로 전파·확산되었다. 많은 건축가들이 그의 이론에 의해 수많은 건축유산의 보수를 시행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은 마침내 1904년의 국제건축가협회(國際建築家協議會)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헌장을 채택토록 하기에 이르렀다.

“기념물의 보수는 원래의 양식대로 행해져서 양식의 통일을 기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양식의 통일이 건축물의 미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要素)이고 기본적인 기하학적 형태는 양식의 통일에 의해서만 완전하게 재현 가능하기 때문이다.”⁸⁾

8) International Congress of Architects, Madrid, 1904

Viollet-le-duc의 이론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공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2가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1) 증거 불충분한 경우의 문제

건축유산에 관한 증거(evidence)가 불충분한 경우 양식의 통일이란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2) 건축가의 주관적 해석에 의한 오도가능성

Chateau-de-Pierre Fonds(사진 2)의 보수공사의 결과 기존의 건물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양식의 건축물로 변모하는 모순을 보여주었다. 결론적으로 보수(restoration)가 아닌 재건축(reconstruction)이 되어 재건축된 건축물이 원래의 건축물로 잘못 인식되게 하는 우를 범하게 되었다.

4. 낭만주의 보수이론(浪漫主義 補修理論)

빅토리아 여왕시대 영국에서는 종교적 열망으로 인하여 그때까지 남아 있던 후기고딕 혹은 튜더양식의 건물(建物)을 순수성의 상징인 Gothic style로 개조코자 하는 움직임이 활발히 전개되었다. 이러한 상황하에 Sir Gilbert Scott는 Viollet-le-duc의 양식주의적 보수이론에 입각하여 수많은 보수공사에 참여하였다. 양식주의이론에 근거한 보수의 결과로 변형 혹은 훼손된 건축유산(建築遺産)의 모습은 많은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그 중에서도 Ruskin은 그 대표적인 이론가였다.

Ruskin은 그의 저서에서 다음과 같이 보수에 의한 건축유산의 훼손을 경고하고 낭만주의이론에 의한 보수를 주장하였다.

“보수(restoration)는 건축물에 대한 가장 커다란 파괴행위이다. 죽은 사람을 되살릴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때 위대하고 아름다웠던 건축물을 되살릴 수 없다. 다른 시대에는 다른 정신이 주어질 뿐이며, 그때 건축물은 이미 새로운 것이다.”⁹⁾

예술작품은 본질적으로 유일무이한 것으로 재현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라는 Ruskin의 주장은 현대 미학이론(美學理論) 및 언론이론(言論理論)에 의해서도 그 타당성이 인정되고 있다. 즉 오늘 날 우리가 라틴어나 산스크리트어를 사용해서 말을 한다 하더라도 그 언어(言語)가 통용되던 시대의 생각이나 감각을 그대로 오늘날 표현해 내기는 불가능한 것이다.¹⁰⁾ Ruskin은 보수를 건축유산의 재건축 혹은 창조의 대상으로 간주한 Viollet-le-duc과는 달리 “원형 그대로의 보존”에 충실코자 노력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Ruskin은 건축문화재에 대한 무분별한 보수(補修)를 지양하고 적절한 유지관리를 통한 보수(補修)를 선호하였다. 보호조치의 과정에서 생기는 어떠한 댓가에도 개의치 말 것을 주장하였다. 예를 들면 건조물의 결구가 느슨해지면 띠쇠로서 연결하고(사진 3),경사진 건축물은 버팀목을 사용해 보강하며(사진4)이와 같은 보호조치를 취함으로써 생기는 거슬림(unsightness)는 개의치 말 것을 역설하였다. 그는 역사적 건축물의 보수에 따른 낭만주의적 사고방식을 건물주변의 환경(environment)에 까지도 확대 적용하였다. 당시 영국에서는 건축문화재 주위에 녹색공간(green space)을 신설하는 것이 유행이었으나, Ruskin은 역사적건축물이 인위적으로 조성한 공간이 아닌 원래

9) J. Ruskin, The Seven Lamps of Architecture, 2nd ed., p.355, London, George Allen & Unwin, 1975.

10)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지, v.14.1981

의 환경 속에 보존(保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Ruskin의 이론에 충실한 William Morris는 SPAB를 설립하고 건축유산의 보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역사적 건축물은 계속적인 유지 관리에 의해 보존되어야 하며, 보수작업은 건축물의 조직(fabric)이나 장식물(ornament)를 함부로 변경치 않고 있는 그대로를 보존해야 한다. 즉 세대들이 그들 세대의 미적감각에 맞도록 오래된 건축물보수를 계속한다면 결국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만약 건축물의 타락현상이 극에 달하면 그것은 해체되어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해야 한다.”¹¹⁾

부득이 보수를 행하여야 할 경우에 낭만주의자들은 보수(補修)의 ‘정직성’을 강조하였다. Venice의 Zonzi공작이 건축물보수에 관하여 Ruskin에게 자문을 구하였을 때 보수(補修)에 소요되는 석재(石材)는 원래건축문화재 축조시에 사용(使用)하였던 채석장에서 채취하도록 허용(許容)하였으나 새로운 재료에는 기존 재료와 구분이 되도록 장식을 허락치 않았으며, 보수(補修)날짜를 새겨 넣도록 조언하였다. Ruskin을 위시한 낭만주의자들은 ‘원형의 최대한 보존’을 보수규범으로 내세움으로서 ‘양식의 통일’에 의한 건축유산의 인위적 훼손가능성을 줄이고 후손들에게 가능한 한 건축물 본래의 모습을 남기려고 하는 노력을 기울인 점은 의미가 있다 하겠다. 그러나 이미 노후가 누적된 상태이고 앞으로 계속 노후가 진행될 수밖에 없는 건축유산의 보수에 있어 낭만주의이론만을 고집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한계에 직면하게 되었다.

- (1) 새로운 용도로의 사용 불가로 인한 건축문화유산의 퇴락 가능성 증가
- (2) 부재의 수리와 첨가에 따른 구분 불명확으로 실제 보수시의 기준 모호
- (3) 이론 자체가 매우 일반적이고 실제적 스케일개념이 부족함

5. 현대보수이론(現代補修理論)

19세기 유럽에서 일어난 산업혁명을 기점으로 인류는 그 때까지 상상하지 못했던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다. 인구가 도시로 집중하여 소위 도시화를 심화시키면서 갖가지 문제를 야기하였다. 인구의 도시집중은 우선 그 때까지 중세(中世)의 골격을 유지하고 있던 기존의 도시조직(urban fabric)에 대한 개발압력을 증대시키고, 건축유산의 보존에 심각한 위협요소로 작용하였다. 이와 함께 생활양상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새로운 기능에 적합한 건축물을 선호하는 심리적 욕구도 원형보존에 장해요소의 역할을 하였다. 근대에서 현대사회로 이행하면서 이루어진 사회적 변화로 인한 원형보존에 대한 위협은 2차례의 세계대전을 경험하면서 결정적인 국면을 맞게 된다. 사회변화에 따른 개발 압력과는 달리 전쟁이라는 인위적 요인은 중세의 귀중한 건축유산과 도시조직을 이때까지 인류가 경험한 어떠한 사건보다도 대규모로 파괴하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그 결과 인류의 귀중한 문화유산(文化遺産)인 건축문화재(建築文化財)의 소중함과 적절한 보수필요성을 자각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전쟁의 피해는 지구상의 인류에게 공통된 사항이었고, 산업의 발달과 인구 폭발로 인한 환경오염의 심화는 건축문화유산의 원형보존에 또 다른 위협요소로 작용(作用)하였다.

이러한 시대 상황하에 건축문화유산에 대한 보존(保存)의 필요성이 전세계적인 공감

11) Cevat Erder, op. cit. p.173

대를 형성하면서 20세기에는 UNESCO, ICCROM, ICCOM, ICOMOS 등 문화재보존(文化財保存) 및 보수(補修)에 관한 많은 국제기구의 설립(設立)을 보게 되었다. 이들과 함께 세계건축가협회(世界建築家協會) 등은 앞에서 설명한 양식주의, 낭만주의 보수이론에 의한 보수의 문제점 인식과 새로운 상황변화를 수용하면서 새로운 보수이론(補修理論)들을 제창하게 된다. 보수관련 국제단체들이 주장한 각종 보수(補修)규범들을 검토해보면 이론적 논거는 Ruskin이 내세운 ‘낭만주의’임을 알 수 있다. 다만 엄격한 낭만주의 이론의 적용은 실제 보수시에 제한이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개선하는 방향(方向)으로 규범들을 내세웠다. 이론적인 문제 외에도 20C들어 급속한 발전을 이룬 과학기술로 인하여 새로운 재료와 보수기법들이 고안되면서 보수방법(補修方法)의 지평을 넓혀주었기 때문에 이때까지의 보수이론은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새로운 보수규범은 SPAB성명서(1924년), 아테네회의 권고사항(1931년), 이탈리아 보수헌장(1931), 베니스헌장(1964), 건축유산에 관한 유럽헌장(1975) 및 Burra헌장(1981)등을 들 수 있다. 이들 헌장 및 성명서 등은 시대 및 주변여건의 변화에 따라 다소간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으나, 이들 규범의 공통된 관심사는, 보수(補修)를 통해 보존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양식(style), 기술(skill), 재료(material) 및 절차(procedure) 등의 문제로 요약할 수 있다. 이들 4가지 사항에 대해 여러 보수관련 헌장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양식(style)의 보존

역사적 건축물은 노후가 진척됨에 따라 적절한 보수를 통하여 그 수명을 연장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건축물이 지닌 양식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전문가들로부터 가장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 건축물의 양식은 건물에 대한 일종의 유행과 같은 것으로 역사적 건축물(歷史的建築物)이 가지고 있는 양식을 고수하는 방법(方法)과 보수당시에 유행하는 style로 변형하는 2가지 방향(方向)이 가장 일반적으로 채택되고 있다. 2가지 방법에 대한 선택은 보수당시 공사에 참여한 사람들에 의해 결정되어 현존하는 대부분의 건축유산에는 여러 시대의 양식이 혼재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보수대상인 건축문화재는 여러 시간대의 흔적이 복합적으로 남아있는 특성을 갖고 있다.

현대의 보수규범들은 Viollet-le-duc이 주장한 ‘양식의 통일’에 의한 보수를 지양하고 Ruskin이 제시한 ‘원형보존’을 보수이념으로 따르고 있다. 즉 1931년에 제창된 이태리 보수헌장 5항에는 “보수가 양식의 통일을 염두에 두고 행하여져서는 안된다”고 규정하여 20C에 들어서 Viollet-le-duc의 이론이 보수규범으로 채택되지 않음을 공식으로 선언하고 있다. ICOMOS는 1964년에 Venice에서 열린 회의에서 제정한 헌장 22조에 ‘여러 시대의 가치있는 흔적들을 존중할 것’을 명시하고 있어 Ruskin이 주장한 낭만주의이론이 새로운 보수규범으로 자리함을 보여주었다. 여기에서 우리는 베니스 헌장의 ‘가치있는 흔적’이란 문구를 유념해야 할 필요가 있다. 낭만주의보수이론이 가지는 현실적 한계점과 모호함은 이미 앞장에서 살펴본 바가 있다. 따라서 문제는 현실적 문제점을 낭만주의 이로의 틀 내에서 어떻게 해결해 가는가가 중요하다 하겠다.

여러 국제기구의 보수규범들은 이러한 한계점을 인식하고 ‘원형의 최대한 보존’을 고수하면서 제한적으로는 양식의 변형을 허용하고 있다.

(a)보수로 인한 건축물의 가치 증가

역사적 건축물에서 한 시대의 양식을 없애고 다른 양식을 살릴 경우는 제거되는 부분의 중요성이 극히 적고 새로이 추가되는 부분의 역사적, 고고학적 혹은 미적가치가 큰

경우 혹은 문화적 중요성이 큰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제거해도 좋은 대상의 구체적인 예로는 창문이나 현관을 막아놓은 것(infills)등으로 들고 있다. 12)

(b) 기존 외형과의 조화(調和)

건축물의 구조적외형(structural appearances)에 충실해야 하며 그 결과 건축물의 전통분위기(traditional setting),주위환경(surrounding)과 조화되도록 하여야 한다.13)

(c) 철저한 증거에 의한 보수

건축문화재는 여러 시대의 흔적이 누적된 복합적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특성을 바꾸면서 변형을 요할 때는 반드시 증거(evidence)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14)

2) 재료(Material)의 보존

역사적 건축물의 구성재료는 적게는 수 십 년부터 많게는 수 백 년의 세월을 견뎌온 것으로 많은 부분이 노후된 상태이거나 혹은 자연적 수명은 다한 경우도 있다. 건축부재(建築部材)는 이들이 모여 전체 건물의 뼈대를 형성하고 외관을 결정 짓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건축문화재의 보수는 퇴락한 부재(部材)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된다 해도 지나침이 없다. 현대의 보수규범에서는 건축문화재보수(建築文化財補修)의 제일 원칙으로 ‘원형의 최대한 보존’을 주장하고 있는데, 재료에 관한 한 이 원칙이 그대로 통용되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건축문화재를 구성하고 있는 부재는 가능한 한 보존하여야 한다.

“새로운 재료의 사용은 건축물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보강해야 할 위험을 피할 수 없을 경우에만으로 한정한다.”15)

재료의 원형보존원칙은 재료의 자연적 수명과는 항상 상반되는 문제이다. 그러나 현재의 과학기술의 발달은 서로 위배되는 원형보존 원칙과 재료가 지닌 자연수명 사이의 괴리를 좁혀 원형보존을 한층 더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면 예전 같으면 퇴락의 정도가 심해 목부재(木部材)를 교체해야 할 경우, 현재에는 합성수지 등으로 충진함으로써 기존의 건축문화재의 원형을 유지 가능토록 되었다.(사진 5) 물론 합성수지로 충진한 목부재는 원래의 부재가 지니고 있던 재료로서의 성능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다. 다만 새로이 사용한 재료와 기존 재료와의 이질감 및 장기적 안정성은 좀더 오랜 시간을 두고 연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 노후목재의 충진외에도 보강을 위해 부재 내부에 봉을 삽입하여 구조체를 튼튼히 하는 기술도 개발되어 사용하고 있다.(사진 6)

그러나 기존 부재중 퇴락의 정도가 심하여 교체하여야 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부재를 교체하거나 탈락되어 없어진 부재(部材)를 첨가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원래의 재질과 같은 부재(部材)를 사용해야 한다. 이때 한가지 유의해야 할 점은 Ruskin이 내세운 ‘보수의 정직성’의 구현이다. 즉 기존부재와 새로운 부재를 구분 가능하도록 현대의 보수규범들은 다음과 같은 예를 들어 방향(方向)을 제시하고 있다. 즉 cornice에 장식을 없애든지, 새로운 재료임을 나타내는 글 등을 새기는 방법(방법)이다.

12) Carta del restauro italiana, 1931

13) Burra Charter,1981.

14) Venice Charter, 1964.

15) Conclusions of the Athens Conference,1931.

3) 기술(skill)의 보존

건축유산의 보수와 관련하여 기술적인 사항에서 2가지가 고려되어야 한다. 즉 전통기술의 보존과 첨단기술의 수용에 관한 점이다. 전통기술은 날이 갈수록 사회적수요가 줄어드는 현상에 비추어 퇴조 혹은 단절되어 감이 사실이다. 이러한 현상은 건축문화재가 축조되던 당시에 비하여 전반적으로 변화된 사회적 여건을 감안한다면 당연한 일일지 모른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건축물(建築物)은 축조 당시에 사용된 기술을 통해서 만이 문화재(文化財)의 ‘원형의 최대한의 보존’이 가능하다. 따라서 전통기술의 맥락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배려가 국가적 차원에서 요구된다. 유럽평의회는 건축현장(1975)7조에서는 동사항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전통적인 기술이 사라지도록 해서는 안되고 계승, 육성해야 하며, 그 방법의 하나로 교육기관을 설립, 운영할 것”을 권고하였다.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신기술의 응용을 배제해서는 안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선별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기술의 사용은 두 가지 경우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전통연장 대신에 새로운 연장을 사용하는 경우이다. 즉 목재치목에 있어 자귀 대신에 전기대패를 사용하여 작업능률을 향상시키는 방법(方法)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때에는 건축문화재(建築文化財)의 전체 외관과의 조화를 고려해야 한다. 둘째, 건축문화재의 보수에 앞서 현재 상황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거나, 약화된 구조를 강화하기 위해 현대기술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과학기술 역시 퇴락한 건물의 보존에” 따른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활용되어야 한다. 이 경우에는 경험적인 것보다는 엄밀한 과학적(科學的)인 것이 중요시되어야 한다.¹⁶⁾ 현대의 과학기술은 이제까지 경험에 비추어 판단했던 관행에 보다 정확한 판단이 가능토록 하였다. 예를 들면 구조체를 해체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파괴검사기, X-ray¹⁷⁾등을 통하여 건축문화재의 손상부위를 정확하게 밝혀낼 수 있다.

4) 보수 과정상의 절차(procedure)

건축문화재가 일단 노후하여 보수를 해야할 경우에는 앞에서 설명한 여러 가지 항목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보수방법(方法)에 대한 판단은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한번 보수가 행해지면 사실상 원형을 복원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비가역적 성질(非可逆的性質)’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건축문화재 보수의 목적이 원형보존(原形保存)이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의사결정의 절차(procedure)문제가 대두되었다. 모든 정책은 어떤 형태로든지 결정과정을 거치게 되고, 이렇게 결정된 정책은 사업결과를 직접 구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역사적 건축물의 복합적, 비가역적특성에 기인하는 절차상 고려해야 할 점은 다음 몇 가지로 구분된다.

(a) 폭넓은 전문가 의견 수렴

과거에는 건축유산의 보수에 관한 의사결정은 공사에 관련된 몇몇 전문가의 견해에 좌우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역사적 건축물이 지니는 복합적 특성과 비가역적 특성은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판단을 하도록 절차상의 개선을 유도하

16) Carta del restauro italiana,1931.

17) 문화재 관리국,금산사 실측조사보고서,1981.

였다. 한편 건축문화재는 더 이상 주위의 건축물과 떨어져서 단독으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었다. 여기에서 보수에 관여하는 전문가가 단순히 기술자, 고고학자들 뿐만이 아니라 도시계획가 및 관계전문가들 까지도 보수에 관한 결정을 내리는데 반드시 필요한 멤버로 이식되기에 이르렀다.

(b) 규칙적인 유지, 관리의 필요

광범위한 기초조사의 과정을 거쳐 각각의 건축문화재에 대한 지정(designation)작업이 완료되면, 건축문화재가 퇴락하여 보수가 필요한 상태에 이르기 전에라도 꾸준히 규칙적으로 보존상태에 대한 조직적인 검사(inspection)를 행하고 그 기록을 반드시 유지하여야 한다. 해당 건축문화재에 대한 현장검사 외에도 관계기록(문헌,자료)등에 대한 수집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것은 현장조사 결과에 대한 보다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데 매우 유용하게 쓰이기 때문이다. 즉, 현장에서의 기술검토와 이를 보완하는 고고학적(考古學的)이고 역사적(歷史的)인 연구가 보수공사 이전에 완료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c) 퇴락원인에 대한 분석작업

실제로 건축유산의 퇴락 정도가 심하여 보수가 필요한 경우에도 단순히 경험에 의하여 그 원인을 속단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이때에는 퇴락원인에 대한 철저한 분석(analysis)작업을 거쳐 적절한 대책을 수립토록 해야 한다. 분석 작업은 매사례(case)마다 별도로 취급되어야 한다. 만약 비슷한 case들을 동일 사례로 묶어 한꺼번에 검토해서는 각각의 건축물(建築物)이 지니고 있는 특성을 보수에 반영할 수 없으므로 지양해야 한다.

(d) 보수과정의 기록(recording)

사전점검과 원인분석을 거쳐 구체적인 보수방향(方向)이 결정되었을 경우에 다음으로 유의해야 할 사항은 보수의 전과정을 남김없이 기록(recording)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여기에는 보수전, 후의 건축문화재의 정확한 상황, 구조체의 모든 부분과 그 형태, 해체와 조립의 전과정이 정확히 기록되어야 한다. 세밀한 기록을 위해서는 설명, 사진, 도면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야 한다. 다만 설명은 묘사(describe)에 그쳐서는 안되고 분석(analysis)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이러한 기록들은 보고서(報告書)와 같은 책자형태로 발간되어 일반인이 아닌 관계전문가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공개되어야 한다. 기록의 공개 원칙은 미래에 유사한 형태의 보수작업에 참여할 사람들로 하여금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을 공유케 함으로써 앞으로 일어날지도 모르는 오류를 최소화 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

6.결언

19세기 후반기에 태동된 현대적 의미의 보수이론(補修理論)은 Viollet-le-duc의 양식주의이론과 Ruskin의 낭만주의이론으로 대별된다. Viollet-le-duc은 해석적이론(interpretative)에 근거하여 건축유산의 보수에 있어 원래의 양식적 통일(stylistic unity)상태로 되돌리고자 시도하였다. 그의 시도는 다분히 주관적이고 예술적(subjective artistic)인 접근방식을 취하게 되었다. 이에 반하여 Ruskin은 낭만주의이론에 근거하여 '원형의 최대한 보존'을 보수(補修)의 목표로 삼았다. 원형보존을 위해서는 보수결과에 의해 건축유산이 잘못 오도되지 않도록 '정직성'을 강조하였다.

20세기의 여러 보수 규범은 그 이론적 노리는 Ruskin의 낭만주의적 사고를 좇아 '원

형보존'을 추구하면서, 엄격한 이론 적용에서 생기는 현장에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약간의 flexibility를 추구하였다. 유연성의 부가는 현대의 급격한 기술발전에 따라 보수방법의 적용영역이 확대된 사회적 요인도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보수방법론의 정립의 주된 관심사는 무엇을 보존할 것인가-양식, 재료, 기술-그것들을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결정하는 4가지 사항에 집약되어 있다 하겠다.

건축유산의 보수에 관한 오랜 경험을 지닌 유럽에서의 경험은 한국의 건축문화유산의 보수방법론의 정립에 이정표 역할을 할 것임에 틀림없다. 우리는 자체적으로 현대적 의미의 보수이론을 정립할 시간도 없이, 식민지 통치하에서 순수한 의미에서 건축유산을 보수, 보존하기보다는 식민정책의 일환으로 취급되어 오히려 보수가 해악이 된 예를 많이 보아 왔다. 예를 들면 석굴암의 잘못된 보수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해방이후 6·25를 통해 많은 건축문화재가 파괴되었으며, 조국근대화의 깃발아래 산업화의 와중에 많은 건축유산이 훼손 내지 멸실되었다. 다행히 오늘날에는 경제발전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 이제야 우리 것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한 단계이다. 굴곡된 과정을 통해 뚜렷한 보수이론(補修理論)의 정립이 안된 상태에서 오늘날에는 각종 전보의 홍수 속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의 현실을 감안할 때 이제부터라도 우리 현시에 적합한 보수이론의 모색이 절실한 시점이라 하겠다.

부록 : 현대 보수규범
(附錄 : 現代 補修規範)

<p>1) SPAB 성명서부분 (聲明書副本) (1924년)</p> <p>2) 아테네회의 의 권고(勸告) (1931)</p> <p>3) 이탈리아 보수헌장(補修憲章) (193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과 같은 충분한 이유가 있을 경우 오래된 건물에 새로운 부재를 첨가(addition)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 —현재 사용 가능한 방법으로 보수작업이 행해지고, 옛날의 형태에 부합하여 그것이 과거 양식의 단순한 재현이 아닐 경우 —새로운 부재를 첨가 하는 것이 영구히 요청되거나, 보수결과가 불충분 하거나 불필요 하다는 평가를 받지 않을 경우 ◦ 퇴락의 정도가 심해서 불가피할 경우, 보수시에는 과거의 역사적, 예술적 작업의 모든 결과가 존중되어야 하며 어떤 특정한 시대의 양식을 없애는 방향으로 행해져서는 안된다. ◦ 전문가는 기념물(monuments)의 구조체 강화(consolidation)를 목적으로 새로운 재료를 사용할 경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 전문가는 현대기술(modern technique)을 사용해서 쓸 수 있는 모든 가능한 재료(특히 철근콘크리트)를 현명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야 한다. ◦ 구조체 강화의 흔적은 가능한한 노출되지 않게 숨겨져, 보수 완료된 기념물의 원래의 외관과 성격이 보존되도록 해야한다. ◦ 새로운 재료를 사용해서 보수하는 것은 보존되어야 할 부분이 칠 거 되거나 보강될 필요가 없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 기념물에 피해가 있을 경우 치밀한 보존이 필요하며, 가능할 때에는 복원 가능한 원래의 부재를 복구하는 작업이 행해져야 한다. 이러한 목적에 쓰이는 새로운 재료는 모든 경우에 원래의 재료와 구분 가능해야 한다. ◦ 기념물의 조직강화와 부분적 보수가 행해지기 전에 퇴락현상과 원인에 관한 면밀한 분석을 실시해야 한다. ◦ 예술적, 역사적 가치를 지닌 요소들은 만들어진 시대를 불문하고, 양식의 통일(unity of style)을 염두에 두거나 원래의 상태로 되돌리고자 하지 않는 방향으로 보존되어야 한다. 다만 쓸데없이 미관을 손상하거나 중요성과 의미가 없는 것들, 예를 들면 창문이나 현관을 막아놓은 것(infills)들은 제거해도 좋다. ◦ 보수하는 경우에는 보수작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의 개인적인 판단에만 의존하지 않고 여러 사람들로부터 그 정당성을 인정 받아야 한다. ◦ 구조체를 강화하거나, 기념물의 일부분을 재사용하기 위해 전체 혹은 일부분을 재축조하기 위해 새로운 부재를 덧붙일 때에는 다음 원칙을 따라야 한다.
--	--

4) 베니스憲章
(1964년)

- 건조물의 외관이 있는 그대로의 단순함과 구조적 외형에 충실하거나, 새로운 부재가 별도의 장식을 부가하지 않으며, 기존 건조물의 외곽선이 계속되고 있음을 고수해야 한다.
 - 첨가되는 부재는 원래의 재료와는 다른 것을 사용하며, 장식이 없는 cornice를 사용하거나 역사적 기록을 오도치 않도록 원재료와 명확히 구분되도록 해야한다.
 - 옛 건조물을 건설할 때에 소용된 기술이 더 이상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거나 기념물의 약화된 구조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가장 현대화된 기술을 사용해야 한다.
- 여러 분야의 과학기술 역시 퇴락한 건물의 보존에 따른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활용되어야 한다.
- 이 경우에는 경험적인 것 보다는 엄밀한 과학적인 것이 중요시 되어야 한다.
- 보수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강제적인 의무조항을 두어야 한다.
즉 구조체의 모든 부분과 형태, 보수의 전과정, 해체 조립의 과정이 영구히 신뢰할 수 있게 보존되도록 분석적인 설명과 함께 기록되어야 한다.
 - 보수과정은 고도로 전문화된 작업이다. 보수의 목적은 건물을 동결적으로 보존하고 그것이 지닌 미적, 역사적 가치를 나타내는데 있으며 이러한 작업은 구체적인 확실한 문서에 근거를 두고 실행되어야 한다.
 - 보수는 절대로 추측에 의해서는 않되며, 확실한 증거가 없거나 불가피하게 보수를 할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부재와는 구분이 되도록 해야 하며 항상 일시적인 처치임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 전통기술을 적용하기에 부적절한 곳에는 과학적 data와 경험에 의해 그 효과가 입증된 경우에 기념물의 구조체 강화를 위해 현대기술을 응용할 수 있다.
 - 건축물에 남아있는 여러 시대들의 가치있는 흔적들은 존중되어야 하는데, 그이유는 보수의 목적이 양식의 통일(unity of style)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 건축물이 다른 시대에 걸쳐 첨가된 여러 흔적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어느 특정 시대를 강조해서 나타내는 일은 특별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 즉 제거되는 부분의 역사적, 고고학적 혹은 미적가치가 매우 작고 보존상태가 보수를 허용할 만큼 양호해야 한다.
- 건물의 어떤 부재가 중요한지 혹은 제거되어야 할지에 대한 판단은, 보수에 참여하고 있는 개인의 판단에만 의해 결정되어서는 않된다.

<p>5) 건축유산(建築遺産)에 관한 유럽(憲章) (1975)</p> <p>6) Burra 헌장(憲章) (198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없어진 건축부재를 대체(replacement)하는 것은 전체와 조화되는 것을 전제로 하며, 동시에 대체된 부분은 원래의 것과 구별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 이렇게 함으로써만이 본래의 건축물이 지닌 예술적, 역사적 증거가 보수로 인하여 잘못 인식되지 않기 때문이다. ◦ 보수과정에서 새로운 것을 첨가하는 것은, 첨가로 인하여 건축물의 중요성, 전통분위기(traditional setting), 주위환경(surrounding)과의 조화등을 떨어뜨리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 전통적인 기술은 사라지도록 해서는 안되고 계승되도록 육성해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수는 현존하는 건축물의 조직에 덧붙여진 부착물을 제거하거나 새로운 재료를 사용치 않고 현존하는 부재들을 재조립함으로써 알고 있는 원래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을 의미한다. ◦ 보수는 건축물구조의 원래상태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있거나 건축물 구조를 원래 상태로 도립으로써 건축물의 문화적 중요성을 되살릴 수 있는 경우에만 행해wu야 한다. ◦ 보수를 한후에 건축물은 새로운 문화적 중요성(미적, 역사적, 과학적 혹은 사회적 가치등)을 보여줘야 한다. ◦ 보수는 추측에 의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구체적, 서류상 혹은 다른 증거들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 ◦ 보수는 원위치에서 벗어나 있는 부재들은 재조립하거나 혹은 부착물을 제거하는 것을 의미한다. ◦ 건축물에 남아있는 여러 시대의 흔적들은 존중되어야 한다. 건축물의 보수시 한시대의 흔적을 남기고 다른 시대의 흔적을 없애는 것은, 없어지는 흔적에 비해 남아있는 것의 문화적 중요성이 매우 큰 경우에만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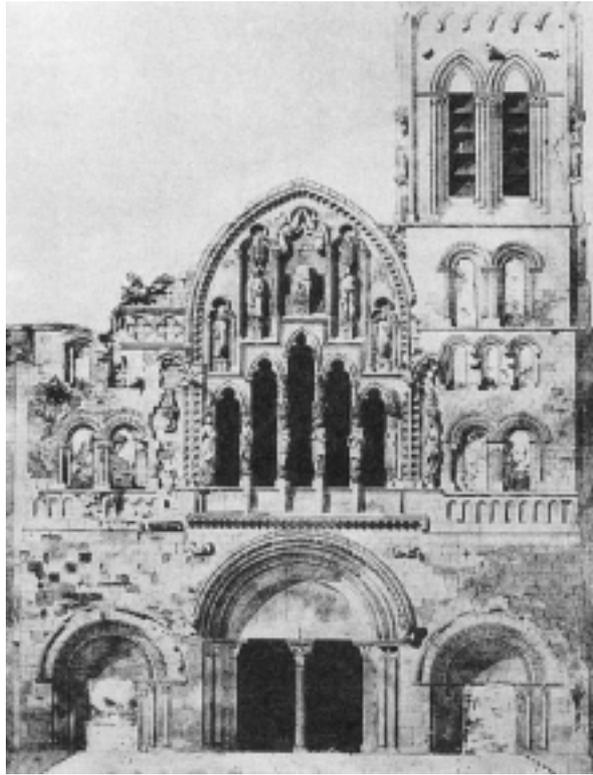


사진 1 Church of Vezeal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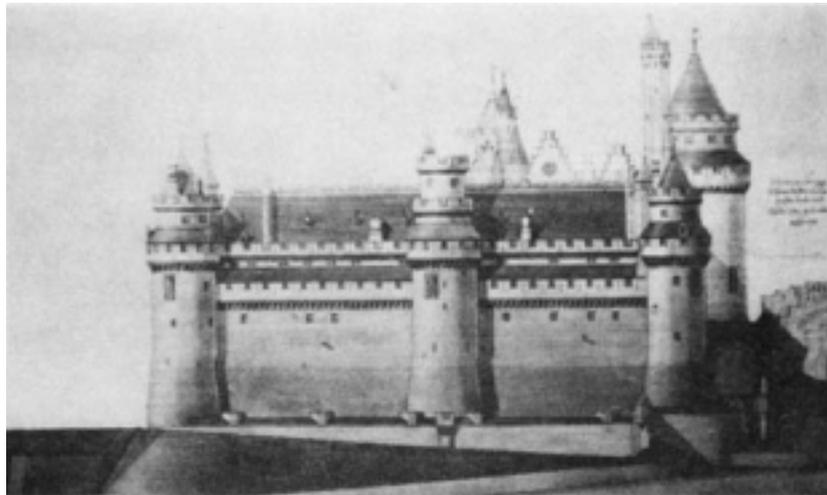


사진 2 Cheateau-de-Pierre fond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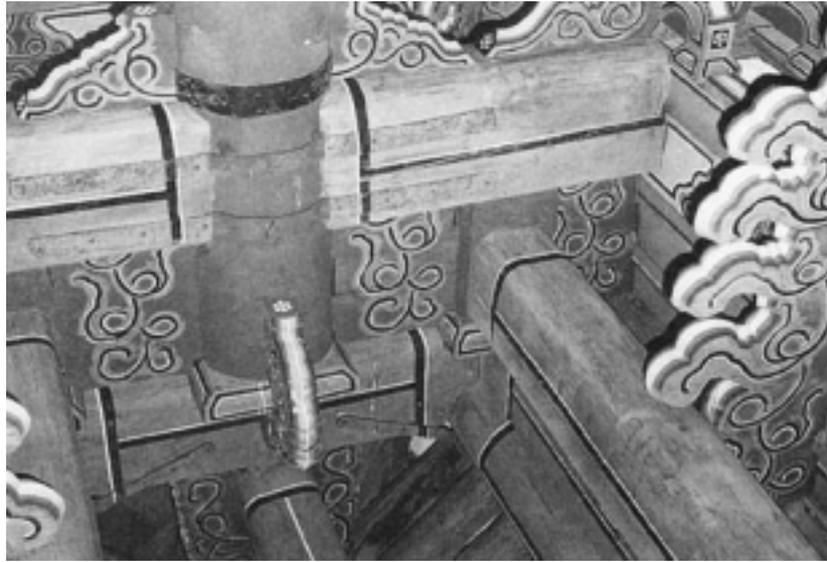


사진 3 띠쇠 연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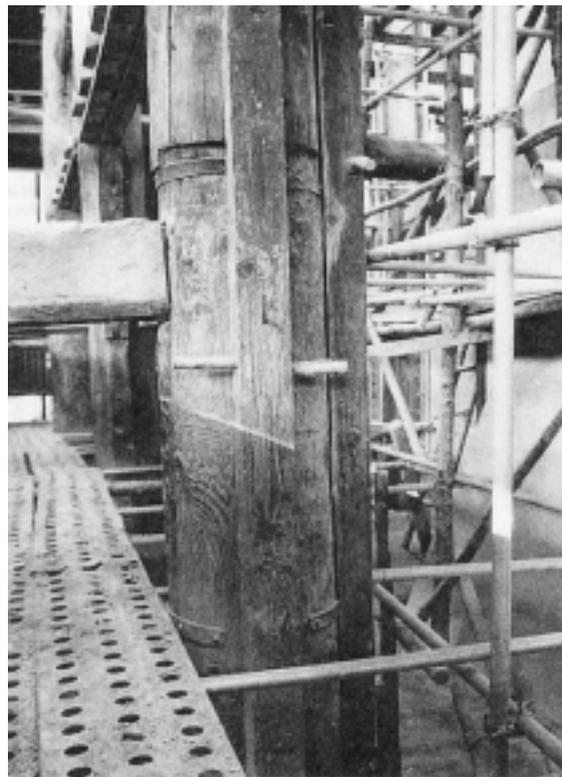


사진 4 버팀목 보강



사진 5 합성수지 충전



사진 6 Stainless 봉 삽입